〔연구논문〕

ISSN 1225-1151 (Print)
ISSN 2234-0793 (Onlin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Vol. 47, No. 2 (2023) p.232~243
https://doi.org/10.5850/JKSCT.2023.47.2.232

마틴 구티에레즈의 패션미디어 작품에 나타난 정체성 표현 -주디스 버틀러와 아테나 아타나시오우의 박탈(Dispossession) 개념을 중심으로-

이명선 · 임은혁†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Expression of Identity in Martin Gutierrez's Fashion Media Works -Focused on Judith Butler and Athena Athanasiou's Concept of Dispossession-

Myeongseon Yi · Eunhyuk Yim†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

Received August 11, 2022; Revised December 13, 2022; Accepted January 17, 2023

Abstract

The boundaries between fashion and contemporary art are increasingly blurred showing their interchangeability. This study examines Judith Butler and Athena Athanasiou's concept of dispossession to analyze expressions of gender, racial, and class identity in Martine Gutierrez's representative work, *Indigenous Woman*. First, gender expressions in *Indigenous Woman* emphasize the possibility of performative and practical gender as an image that rejects norms that grant authority according to the possession of innate body parts. Second, racial identity is expressed through resistance to the ideology of whiteness and imperialism reinforced by fashion media. The author aims to overcome normative stereotypes through the media she creates, which reveals her identity as a person of color. Third, class identity is represented through stereotypes that limit the lives of indigenous people to primitive and natural things. The author reveals a critical awareness of the hierarchical structure and cultural appropriation these stereotypes have created. This study analyzed contemporary artworks using fashion media through the concept of dispossession.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raising a critical awareness of the practices that diffuse minority identities in fashion media.

Key words: Indigenous Woman, Fashion Media, Dispossession, Identity; 원주민 여성, 패션미디어, 박탈, 정체성

I. 서 론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현대미술이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면서 패션과 예술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패션 역시 다양한 예술화 전략을 통해 패션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 이렇듯 오늘날 패션과 현대미술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으며 그 표현에 있어 상호교환적 양상을 보인다. 현대미술의 입장에서 패션이 가진 대중 친화적 특성은 홍보나 마케팅 측면에서 활용 가치가 높은데, 그 중 패션미디어는 직관적인 시각 언어로 대중과 쉽게 소통한다는 점에서 현대미술 작품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기에 용이하다. 현대미술가 Martine Gutierrez는 다양한 장르를 융합한 작품으로 본인의 정체성을 탐구하는데 있어 이

†Corresponding author
E-mail: ehyim@skku.edu

ⓒ 2023,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All rights reserved.

러한 패션미디어의 특성을 활용하였다. Gutierrez의 대표작 「Indigenous Woman」은 패션매거진의 형식을 차용한 작품으로, 이 작품으로 Gutierrez는 국제적 예술가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Byun, 2020). 작품에는 작가의 성별, 인종, 계급 등의 다양한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 패션미디어의 속성이 전략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박탈(dispossession)'은 「Indigenous Woman」에 나타난 정체성 표현을 타자와의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하기에 적합한 개념이다. Judith Butler는 정치적인 것에서의 수행성을 Athena Athanasiou와의 대화를 통해 박탈이라는 개념으로 정립하였다(Butler & Athanasiou, 2013). 그리고 Butler and Athanasiou(2013)는 자아를 타자와의 상호작용에 열려있는 관계적 개념으로 인식하면서 타자의 고통을 마주할 때 타자와의 관계성을 발견하고 연약한 타자에 대한 반성적 차원의 박탈으로 타자와의 연대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박탈을 통한 타자와의 상호작용은 개인의 정체성을 허물고 지속적으로 변화하게 하는데, Gutierrez의 작품 또한 주체적 존재와 타자와의 관계성 및 유동적 정체성을 탐구하고 있다는 지점에서 박탈 개념과 맞닿아있다.

이처럼 패션미디어가 현대미술가의 작품에 활용되고 현대미술 영역에서의 패션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연구는 제한적이다. 현대미술과 패션에 관한 연구는 주로 패션에서 현대미술을 활용한 사례에 주목하고 있는데 럭셔리 패션 브랜드가 현대미술재단을 소유하는 현상의 본질과 그 목적을 분석하거나(Grassi et al., 2019), 패션 브랜드의 비주얼 아이덴티티를 강화하기 위해 현대미술을 아트 프린트로 활용한 사례를 고찰한 연구 등이 있다(Baek & Bae, 2017). 반면 현대미술의 영역에서 활용된 패션과 패션미디어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나아가 현대 예술연구에서 박탈 개념은 Kim(2018)의 현대미술가 마를렌 뒤마의 작품을 분석한 연구나 Chung(2018)의 동시대 미술을 통한 '관용'의 증진 가능성에 대한 연구에서 일부 활용되었다. 그리고 Gutierrez의 작품을 분석한 연구로는 Fellah(2020)의 「Indigenous Woman」를 분석한 연구와 Byun(2020)의 디지털 미디어아트에서의 인간 이미지 표현에 대한 연구가 있으나 Gutierrez의 작품에 활용된 패션미디어적 표현과 그에 따른 작가의 정체성 표현을 고찰한 연구는 부족하다.

최근 Gutierrez를 비롯한 현대미술가들은 패션미디어를 활용하여 작품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대미술의 패션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된다. 따라서 현대미술이 주목하는 패션미디어의 속성과 그 표현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자아를 타자와의 상호작용에 열려 있는 관계적 개념으로 인식하는 Butler and Athanasiou(2013)의 박탈 개념으로 「Indigenous Woman」에 나타난 정체성 표현을 분석하여 현대미술이 차용한 패션미디어의 정체성 표현이 가진 내재적 특성을 도출하고 그 의미를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미디어에서 표현되는 정체성을 유형별로 살펴본다. 둘째, 박탈 개념을 고찰하여 Gutierrez의 대표작 「Indigenous Woman」에 나타난 정체성 표현을 젠더, 인종, 계급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한다. 셋째, 분석한 「Indigenous Woman」의 정체성 표현을 바탕으로 현대 예술의 관점에서 표현된 패션미디어의 특성과 의미를 도출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패션미디어에서의 정체성 표현에 관해 살펴보고 분석의 토대가 될 박탈 개념을 고찰한다. 다음으로 사례연구를 위해 Gutierrez가 패션미디어의 형식으로 표현한 작품 「Indigenous Woman」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한다. 그리고 표지를 포함하여 작품에 실린 108개의 사진들을 박탈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규범적 조건인 젠더, 인종, 계급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한다. 분류된 작품들은 해당 작품에 대한 정보와 해석 및 평가가 실린 서적, 논문, 기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체성 표현의 특성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현대미술의 영역에서 패션과 패션미디어의 특성과 형식을 활용한 사례를 심층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비평적 관점으로 패션과 패션미디어를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자아가 규제적 이상을 토대로 생성된다고 주장하는 박탈 개념으로 작품을 해석하여 패션미디어의 규범적 정체성 표현을 재고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박탈(Dispossession) 개념에서의 정체성과 패션미디어

그리스 판테이온 대학교에서 Butler와 Athanasiou가 나눈 대담 속에서 도출된 '박탈'은 토지 침해의 관

행 의미에서 시작된 용어이다. 식민주의적, 탈식민주의적 정착민의 맥락에서 오인과 전유, 토착민 토지의 점령 등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원된 용어에 기초하지만 Butler와 Athanasiou는 박탈을 '자발적인 소유의 거부 또는 어떤 물질이나 상태를 소유하지 않은 상태 자체'로 정의한다(Butler & Athanasiou, 2013). 자본주의적 서구의 근대성 논리에서 존재(being)는 소유(having)와 존재론적으로 서로 포개어져 있다. 이로써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소유하지 않은 박탈된 주체들은 비존재(non-being)와 비소유(non-having)로서 존재하고 사회적으로 할당된 처분 가능성(disposability)이 높아진다.

Butler는 식민주의 시대의 토지 수탈을 예로 들며 박탈 개념을 설명하는데 이는 Gutierrez의 주요 작품인 「Indigenous Woman」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시각을 제시한다. 현지인(autochthonous)은 땅에 속하거나 또는 지상의 어떠한 장소에 속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현재 유럽에서는 이주민이 아닌 유럽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된다(Butler & Athanasiou, 2013).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용어가 토착민(indigenous)과 혼용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다르다는 데에 있다. 현지인은 토착민이 가진 땅의 소유권을 박탈하고, 그들의 소유권이 박탈된 땅에 억류한다. 나아가 Athanasiou에 따르면 소유권은 토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며 인종과 젠더와도 관련이 있다(Butler & Athanasiou, 2013). 그리고 소유권은 특정 인종과 젠더 등의 필요조건이 부합해야만 가질 수 있는 것으로 곧, 온전한 문명화된 인간이라는 주체를 의미하는 백인 남성이라는 선결 조건을 갖추어야 소유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Butler와 Athanasiou는 식민주의적 박탈로부터 인종주의적 박탈과 젠더 및 성적 박탈 등을 중심으로 박탈 개념을 확장하여 설명하고 있다.

모든 주체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가치관을 선별적으로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박탈의 역동을 통해 자아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Butler & Athanasiou, 2013).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고정관념을 소유하기로 결정하면서 박탈당한 자의 위치에 놓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고정관념을 소유하기를 거부하면서 능동적으로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주체로서의 자리를 점하게 된다. 자아는 타자를 통해서만 창조되는 것으로 누구를 이해가능한 주체로 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규제적 성격의 이상(理想)들에 영향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생사의 투쟁마저도 상호 인정에 의해 구축됨에 따라 박탈당한 이들은 생존을 위해 이미 만연해 있는 규범적 인정의 구조에 편입되려는 경향이 생긴다.

오늘날 신자유주의 권력은 이윤 창출이라는 명목 하에 억압적이고 예속적인 힘을 사용하면서 주체들에게 소유권의 소유, 상품 물신주의 혹은 소비를 통한 기쁨이라는 소위 '좋은 삶'의 환상과 진리를 심어주고 있다(Butler & Athanasiou, 2013). 이로써 자기 삶의 형태를 스스로 형성해내는 양상을 주입하여 지속적으로 열망들을 생산해내고 통제할 뿐만 아니라 좌절시킴으로써 신자유주의 권력은 강화된다. 패션미디어는 제공하는 신화적 환상 또한 권력의 주체의 헤게모니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열망의 생산과 통제로 강화하는 권력이라는 지점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패션미디어는 여성을 남성적 시선으로 자신과 다른 여성을 바라보도록 장려한다(Davis, 1997). 남성적 시선으로 그려진 신체적 속성과 섹슈얼리티를 강조하는 헤게모니적 여성성은 여성을 통제 가능한 수동적 성적 대상으로 구성하여 고정관념을 소유한 박탈당한 자의 위치에 둔다. 한편 백인 모델이 지배적인 패션매거진에 등장한 유일한 흑인 모델을 본 흑인 여성들은 그와 유사하게 소외되고 무시되는 자신을 연상시켜 사회적 비교와 배제의 감정이 활성화된다(Austin, 1992). 이에 '우리'와 '그들'의 사회적 범주가 생성되고 박탈당한 타자와 능동적 주체의 구도로 사회적 정체성이 생성된다.

Athanasiou는 이러한 억압적 권력에 대한 투쟁으로 박탈당한 이들을 물화(reification)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그들의 고유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초대하여 그들의 개별성을 존중하는 반응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Butler & Athanasiou, 2013). 상업성과 물신주의에 대한 비판을 받는 패션미디어에서도 박탈당한 이들의 취약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패션미디어가 박탈당한 이들의 고정관념을 고착화하고 재생산하거나 타자화하여 스펙터클이나 구경거리로 활용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2. 정체성과 패션미디어

개인의 정체성은 개인적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독특하고 개별적인 특성을 가진다. 정체성은 나이, 민족, 인종, 성, 언어, 사회경제적 지위 등 다양한 영역과 관련되어 있다. Athanasiou는 자아를 생성하거나 파괴하

거나 또는 재생성하는 것은 타자를 통하여 타자의 힘으로써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Butler & Athanasiou, 2013). 즉, 사회적 규범이 개인의 정체성을 인식 가능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들고, 자아의 주권적 위치는 타자와의 관계에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타자와의 관계 맺음에서 사회적으로 인간 주체의 생존이 결정되고 인정과 배제가 나타나게 된다.

한편 Athanasiou는 인정을 젠더나 성별, 인종, 계급과 같은 규율적이고 규범적인 조건들에 의해 주체를 인간이라는 존재로 담론적으로 생산해내는 하나의 기제라고 설명한다(Butler & Athanasiou, 2013). 그리고 Voltaire(1989)는 역사적으로 인종, 계급, 성에서 배제의 체계가 서로 닮아 있으며 한 배제의 체계에서 다른 배제의 체계로 쉽게 확산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즉, 개인의 정체성의 형성을 규제하는 규범적 조건인 젠더 및 성, 인종, 계급은 그 근본적 의존성으로 주체의 자율성에 손상을 가하며, 사회적으로 스스로를 박탈시키고 당하게 하는 배제의 체계는 그 규범적 조건 사이에서 확산되는 상호교차적 성격을 가진다.

복식은 정체성의 표현에서 사회적 차이를 구체화하고 가시화하는 핵심적인 수단 중 하나이다(Breward, 1998). 복식을 통해 나타나는 패션 또한 규범적 조건들에 순응하거나 거부하고 그에 따라 사회적 주체로서의 인정과 배제를 수반하는 정체성 표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정체성은 단순히 문화의 원천이 아니라 문화의 결과, 즉 문화적 효과이고, 문화 생산의 기본 요소인 언어는 정체성 생성의 기본 요소이기도 하다(Bucholtz & Hall, 2005). 요컨대 문화의 결과로서의 정체성은 문화의 기본 요소인 언어에 기초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시각 언어와 문자 언어로 문화를 생산하는 패션미디어도 그것이 구축한 문화의 결과로 독자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과거 페미니즘 담론에 의하면 패션매거진은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생산하고 여성을 제한하는 억압이었으나,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몸과 외모에 관한 스타일, 그리고 문화형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패션매거진은 라이프스타일 저널리즘 미디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정체성이 생산에서 소비로 이동하게 됨에 따라 소비의 패턴은 자신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정체성의 형성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공통된 라이프스타일의 문화 속에서 정체성을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Twigg, 2018). 이러한 소비자 중심의 정체성은 대중문화와 미디어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소비를 장려하는 패션매거진에서 제시하는 이미지와 텍스트는 기존의 이데올로기적 규범과 관습을 전달하여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인식하도록 한다. 그 결과로 독자들은 패션매거진이 전달하는 규범과 관습을 수용하여 특정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정체성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thanasiou와 Butler가 박탈 개념을 설명하면서 중점적으로 언급하는 젠더 및 성, 인종, 계급의 세 가지 규범적 조건에 주목하여 패션미디어와 정체성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패션미디어는 자본주의적 소비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기 위한 여성성을 형성하고 심미적 기준을 제시하여 여성이 규범적 미적 기준을 따르도록 독려한다. Talbot(1995)은 대중매체가 여성이 '소비에 기반한 여성성'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장려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주 독자층이 여성인 패션매거진이 여성의 정체성과 그 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적 관행을 생산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그 관행을 여성에게 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정체성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둘째, 패션미디어는 백인 중심의 사회적 이상을 생성할 뿐만 아니라 비백인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재생산하여 인종 정체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 들어서 사회 전반에서 다양성의 포용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패션은 수십 년 동안 다양성 부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패션 저널리스트 Rivas(2021)는 패션매거진의 표지에 흑인 및 유색인종 모델의 등장이 증가했지만 패션에서의 다양성은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Reddy-Best et al.(2018)은 패션매거진에는 유색인종을 과소평가하는 표현이 이어져왔으며, 근소하게 변화하였지만 종종 고정관념적인 방식으로 여성을 표현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이렇듯 패션미디어는 백인 모델을 유색인종 모델보다 많이 기용하고 있으며, 과소평가되고 고정관념적인 유색인종과 여성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셋째, 패션미디어는 독자가 속한 실질적 사회계급의 위치와 상관없이 패션미디어가 제안하는 화려하고 고급스럽게 포장된 의류를 구매하고 착용한다면 상류층에 속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준다. Barthes(2009/1972)는 패션매거진 엘르(Elle)를 '신화학의 진정한 보고'라고 언급하면서 엘르가 환상적이고 장식적인 요리 사진으로 저소득층 독자들에게 환상만을 심어준

다는 지점을 지적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패션매거진은 의복이 가진 상징체계를 활용하여 하이패션 의류를 착용한 모델이 표현하는 상류층의 라이프스타일 이미지를 생산하고, 이로써 소비자들의 계급상승 욕구를 자극하여 의류의 구매를 이끌어 낸다. 한편 패션미디어는 의복의 상징체계를 통해 계급상승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기도 하지만 계급의식과 그에 따른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역할도 한다. Kondo(1999)에 따르면 식민지 내 계급과 민족성의 재배치로 말미암은 식민화와 자본화 과정은 물질적 형태로서의 의복에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이에 서구의 의복은 문명과 개화를 나타내고 토착민의 의복은 야만으로 계층화되어 착용자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III. Martine Gutierrez의 패션미디어 작품 「Indigenous Woman」에 나타난 정체성 표현

Martine Gutierrez는 미국의 비주얼 및 퍼포먼스 아티스트로 정체성의 형성과 표현을 탐구하는 작품들로 유명하다. Gutierrez는 다양한 차원에서의 사회 구성원이자 자아의 표현으로서의 정체성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다루지만 대중에게 익숙하고 접근하기 쉬운 표현 방식으로 작품을 제작한다. 2018년에 발표한 대표작 「Indigenous Woman」은 패션매거진의 형식으로 124페이지에 달하는 광고 캠페인과 패션 에디토리얼을 싣고 있으며, 완전한 자율성을 실현하기 위해 사진 촬영, 모델, 스타일링, 제품 및 그래픽 디자인 등을 모두 직접 했다(Sheets, 2021). 이로써 Gutierrez는 젠더, 인종, 계급 및 국적 등의 경계를 허물어 이분법적이고 대립적 사고의 선형적 틀을 거부하고, 대중적 패션과 현대미술을 결합하여 권위적인 미술 문화에 도전하였다. 본 연구는 Butler와 Athanasiou의 박탈 개념을 설명할 때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규범적 조건에서 세 가지 정체성 유형인 젠더 및 성 정체성, 인종 정체성, 계급 정체성을 도출하였으며, 「Indigenous Woman」에 실린 108개의 사진 중 박탈 개념을 적용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사진을 중심으로 패션미디어를 활용한 정체성 표현 경향을 분석하였다.

1. 젠더 및 성 정체성

Butler(2011)는 젠더 정체성을 수행성(performativity) 개념으로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주체의 정체성은 행함(doing)이라는 수행성의 결과에 의한 것으로 사회적 규범과 관습의 실천으로 표현되고 구성된다. 즉, 젠더는 사회문화적인 것으로 남성이나 여성과 같은 성의 구분은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규범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에 남근의 소유와 비소유라는 규범화된 이분법적 성별 체계는 해체되며, 고유하거나 생득적인 속성들에 기반을 둔 성의 분류가 아니라 수행적인 실천을 통해 다양한 성별화된 육체를 상상할 수 있다(Butler & Athanasiou, 2013).

트랜스젠더 예술가인 Gutierrez는 자신의 젠더 정체성을 「Neo-Indeo, Mam Sets Are The Breast」(Fig. 1)를 통해 남성과 여성 모두가 혼재한 이미지로 표현한다. 라틴 아메리카 토착민의 전통의상을 착용한 작가는 패션미디어에서 이상적인 여성의 신체 사이즈로 마치 패션 화보에 등장하는 모델과 같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젖혀진 상의의 옷자락 사이로 드러난 작가의 가슴은 남성의 것으로 양성을 모두 가진 신체 이미지는 젠더에 대한 고정관념과 제시된 이미지 사이에서 충돌을 표현한다(Byun, 2020).

Athanasiou는 트랜스젠더는 고전적인 인정(recognition)의 변증법을 전제로 소유함과 소유하지 않음 사이의 확실한 구분을 유보한다고 하였다(Butler & Athanasiou, 2013). 그리고 영화 스트렐라(Strella)를 예를 들며 이성애의 규범적 확실성을 거부하는 것으로 주인공은 주인공의 신체를 자신의 것으로 소유한다고 설명했다. Gutierrez 또한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논바이너리(non- binary) 트랜스 여성이라고 밝히며 자신이 여성인지, 여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묻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Sheets, 2021). 이러한 측면에서 「Neo-Indeo, Mam Sets Are The Breast」를 살펴보면 Gutierrez는 여성과 남성을 확실하게 나타내지 않는 모호한 이미지로 규범적인 성의 분류를 거부하고 사회와 타인이 아닌 자신의 인정을 통해 젠더 정체성을 확립하는 주체적 모습을 보인다.

반면 Gutierrez는 패션미디어에서 제시하는 규범적 여성의 신체미를 구현하는 방식으로도 자신의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드러낸다. 「Body En Thrall」(Fig. 2)에서 작가는 비키니 속에 여성의 가슴을 대체하는 멜론을 채웠다. 이로써 Gutierrez는 패션매거진 속 이상적 이미지를 구현하여 수행적 실천으로서의 젠더의 가능성을

Fig. 1. Neo-indeo, mam sets are the breast.
Adopted from RYAN LEE Gallery (2018). p. 32.
https://issuu.com

Fig. 2. Body en thrall.
Adopted from RYAN LEE Gallery (2018). p. 112.
https://issuu.com

보여주었다. 클리브랜드 미술관(Cleveland Museum of Art)의 큐레이터 나디아 리베라 펠라(Nadiah Rivera Fellah)는「Indigenous Woman」속 메이크업, 소품 및 의상들이 젠더의 개념에 대한 도전으로 활용되어 정체성의 수행적 측면을 전면에 내세운다고 평가하였다(Fellah, 2020).

한편「Body En Thrall」시리즈의 사진들은 대부분 노출된 신체로 Gutierrez의 젠더 및 성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 Athanasiou는 자유주의가 여성과 퀴어의 육체를 탈정치화하며, 그들에게서 투쟁과 이의의 역사를 박탈하고 그것으로 여성과 퀴어를 관리하기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 그들을 도구화하여 현실 정치 속의 매커니즘으로 포섭하려 한다고 주장한다(Butler & Athanasiou, 2013). 따라서 자유주의가 베푸는 온정주의적 관용에 의해 벗은 몸의 여성과 게이들은 서구식 해방의 아이콘이 되고, 이는 상품화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규범적 정책을 정당화하는 것에 동원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패션미디어에 등장하는 여성의 신체 주권의 표현인 벗은 몸과 진보된 성적 권리의 표현인 퀴어 이미지는 상품화되어 오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Gutierrez는 패션, 영화와 광고 등의 상업 이미지 제작에서 엄선된 소수에게만 포용될 기회가 주어지고 대부분 곧 수익화되는 것을 지적하였다(Karp-Evans, 2019). 즉, 다양성의 상품화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시각이「Body En Thrall」에도 투영된 것으로 보이며, 작품은 패션미디어가 소수자를 물화하여 이윤을 추구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 인종 정체성

역사적으로 피부색은 인종과 인종화 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Herring, 2002). 백색 피부로 정의되는 아름다움은 교육, 소득, 권력 등과 관련된 사회적 자본의 개념에서 계층화의 요인으로 특히 여성에게는 배우자의 지위 차원에서도 작용한다(Hunter, 2002). Butler의 수행성 개념은 인종 정체성을 해석하는 개념적 틀로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Hall, 1996). Butler(2011)의 수행성 개념에서의 인종 정체성은 인종에는 고정적 형상이나 원본이 부재하며 각각의 인종 정체성 또한 구성되고 수행된 정체성일 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토착민 여성의 인종 정체성은 소유권을 가진 주체들, 즉 인종과 젠더 등의 필요조건을 갖춘 백인 남성이 주류인 사회가 그리는 고정관념에 의해 구성되고 수행되는 것이다.

Gutierrez는 예술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을 반영하는 젠더, 섹슈얼리티, 인종 및 계급의 상호교차성을 탐구하였다(Rosen, 2018).「Indigenous Woman」에도 작가의 성향이 반영되어 각 규범적 조건들이 단차원적으로 드러난 이미지가 아닌 복합적으로 혼재된 이미지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인종 정체성을 분석하기 위해 선정한 작품들 또한 토착민 여성으로서 젠더적·계급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이를 미국의 법학자 킴벨리 크렌쇼(Kimberlé Crenshaw)의 상호교차성 개념을 통해 살펴보면 토착민 여성이 경험하는 고정관념과 차별은 백인 여성과 토착민 남성이 경

험하는 것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으며, 토착민 여성은 때때로 복합적 차별을 경험한다(Crenshaw, 1989). 이에 본 절은 인종 정체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지만 작품의 상호교차성으로 타 유형의 성격도 반영하였다.

Athanasiou는 박탈당한 이들을 물화하지 않고 그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행동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Butler & Athanasiou, 2013). 즉, 박탈된 존재인 토착민은 물질적으로 소비되는 존재로 그려져서는 안 되며, 타자에 대한 추상적인 일반론 및 고정관념을 생성하는 물화를 넘어선 명명화와 이론화가 요구된다. 「White Wash」(Fig. 3)는 광고 캠페인의 형식으로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백인성과 인종차별적 이데올로기에 도전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광고 캠페인의 좌측 페이지에는 청소부로 분장한 Gutierrez가 화장실을 청소하는 이미지가 배치되어 있으며, 우측 페이지에는 White Wash라고 써진 욕실 타일 아래 비누가 놓인 이미지가 있다. 비누 포장에는 "100% 순수한 표백제. 향 무첨가. 문제없음. 때로는 흰색이 옳기 때문이다. 눈에 띄지 않게 하시오. 어린이, 동물, 천연 자원, 토착 문화로부터 멀리 두시오. 접촉하는 모든 것을 파괴함."이라는 글귀가 쓰여 있다.

빅토리아 시대 유럽 열강의 비누 회사들은 자사의 비누 광고에 식민지 비백인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광고 속 비누는 백인의 문명, 계몽, 청결이라 표상이 되고 비누가 부재했던 토착민의 세계는 문명이 부재된 야만의 세계가 되어 백인이 토착민을 개화하는 선민의식을 드러낸다(Kim, 2017). 더욱이 비누로 씻긴 흑인 아이의 피부가 밝아지는 당시의 광고는 바디 로션을 사용한 흑인 여성이 상의를 벗자 백인 여성으로 변하는 현대의 도브(Dove) 광고 이미지까지 이어져오고 있다(Wootson, 2017).

Gutierrez는 작품 속 비누 포장지의 문구로 빅토리아 시대 비누 광고의 인종차별적 논리와 그 유산에 도전한다. 백색으로 강화된 백인성과 제국주의 이데올로기가 어린이, 동물, 천연 자원, 토착문화에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고 경고하고 있다. 나아가 좌측 이미지 속 청소하는 Gutierrez의 모습은 비누와 관련된 위생과 청결을 담당하는 역할의 여성, 특히 유색인종 여성 노동의 현실을 반영한다.

박탈 개념에 따르면 식민주의적·탈식민주의적 정착민의 맥락에서 토지의 점령, 오인과 전유를 정당화하기 위해 인종주의적 가정들이 동원되어 왔다(Butler & Athanasiou, 2013). 이러한 맥락에서 토착민은 인종주의적 가정들에 의해 주체에 가해진 손상으로 박탈된 상태, 즉 비소유와 비존재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즉, 토착민의 역사와 문화는 야만으로 문명이 박탈된 상태가 되며, 그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삶을 영위하던 토착민은 백인성을 정상으로 규정하는 인종차별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주체성을 위협받게 된다. 이러한 박탈을 지탱하는 인종주의에 Gutierrez는 비누의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를 폭로하는 이미지로 대항하고 있다.

한편 시각적으로 드러난 인간의 신체적 차이로 나뉘는 위계적 인종의 범주는 백인의 신체 특성에 인종적 아름다움을 전형으로 삼아 헤게모니적인 백인 우월주의를 강화했다(Camp, 2015). 이러한 인종과 피부색에 점착된 사회적 태도와 가치를 전복시키기 위해 1960년대 미국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Black is Beautiful" 운동을 시작하였다. 흑인의 신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위한 이 운동은 비욘세(Beyoncé)의 앨범이나 리한나(Rihanna)의 의류 브랜드 펜티(Fenty)의 캠페인의 영감이 되어 최근까지도 대중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Vermes, 2021).

「Brown is Beautiful」(Fig. 4)은 얼굴과 몸을 착색하는 로션의 광고 캠페인으로 좌측 페이지의 제품 이미지와 우측 페이지의 반라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Gutierrez의 이미지가 연결되어 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Black is Beautiful" 운동을 오마주한 것으로 보이며, 작품을 통해 자신의 갈색 피부를 긍정하고 유색인종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어진 작품 속 인터뷰에서 Gutierrez는 어떻게 대중에게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권력 구조에 대항할 수 있는가를 질문하면서 유색인종이 객관화되지 않고 노출되고 인식될 수 있기 위해 자신만의 패션 매거진을 만들었다고 하였다(Gutierrez, 2018).

Butler는 근대의 정체성 정치 체제 하의 정체성에서의 인정이 정체성에 상처를 입힌 후 그것을 정치적인 자기 표상으로 만드는데 활용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상처가 정체성의 선언과 전시로서 활용되는 것보다 더 넓은 차원에서 억압하는 사회적 · 경제적 조건들을 극복하는 투쟁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Butler & Athanasiou, 2013). 백인의 신체 특성이 아름다움의 규범적 전형이 된 사회에서 유색인종이 스스로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유색인종이라는 꼬리표로 상처 입은

Fig. 3. White wash.
Adopted from RYAN LEE Gallery (2018). pp. 12-13.
https://issuu.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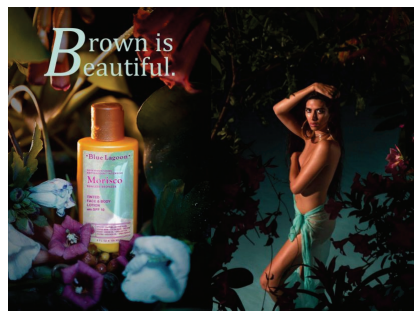

Fig. 4. Brown is beautiful.
Adopted from RYAN LEE Gallery (2018). pp. 6-7.
https://issuu.com

정체성을 자기 표상으로 전시하기보다 규범적 전형을 극복하고 전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Gutierrez는 미백을 장려하는 대중매체인 패션미디어의 형식으로 자신만의 매체를 만들어 유색인종의 피부색의 아름다움을 전파하고 더 나아가 갈색 피부를 권장하는 것으로 사회적 규범에 도전한다.

3. 계급 정체성

Athanasiou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로 말미암은 노동에 대한 폭력적 전유와 노동으로 육체가 소모되는 것을 박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Butler & Athanasiou, 2013). Verhaeghe(2012)에 따르면 오늘날 신자유주의는 자본이 통용되는 시장을 가장 우선하여 보호받게 하며, 자본을 놓고 개인 대 개인 혹은 개인 대 집단, 집단 대 집단의 무한경쟁체제로 돌입된 사회 양태를 형성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개인의 정체성을 매우 부정적 방향으로 형성시키며, 집단적 패착을 일으킨다고 주장한다(Verhaeghe, 2012).

계급의 관점에서 오늘날의 전 지구적 자본주의의 발전 및 재구조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발적 노동력은 그 자발성이라는 외형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정교한 관리 및 통제의 체제 하에 놓여 있다(Seol, 2004). Butler and Athanasiou(2013)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서 규범적 조건을 갖추지 못한 박탈당한 주체들은 그들에게 허락된 비존재와 비소유라는 유일한 공간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유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처분될 가능성을 가진다고 주장한다(Butler & Athanasiou, 2013). 그리고 할당된 처분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신자유주의적 형태의 사회적 · 경제적 삶이 목표하는 바와 효과가 처분 가능성을 할당하는 비균질적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존재와 소유를 누릴 수 있는 주체들과 비존재와 비소유가 할당된 주체들 사이에 계급적 관계가 형성된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구조에서 토착민은 소유한 땅을 박탈당하고 한때 그들의 것이었던 땅에서 억류된 삶을 살아가면서 백인 현지인보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낮은 계급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 Athanasiou는 식민주의적 예속과 박탈이 화해라는 담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당화 및 정상화되고 규제됨을 지적하면서 그 담론으로 인해 토착민은 소리 없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Butler & Athanasiou, 2013). 그리고 생존 수단으로부터의 박탈은 토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주체와 관련된 폭력이자 나아가 인식론적 폭력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즉, 백인 사회에서 토착민의 삶은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문화유산으로 그려져 현대를 살아가는 토착민을 하나의 주체로서 인식하지 못하고 현실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박탈된 존재로 한정시킨다.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Gutierrez의 아버지는 과테말라 출신으로 라틴 아메리카 토착민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 「Neo-Indeo, Cakchiquel Calor」(Fig. 5)에서 Gutierrez는 아버지의 고향인 과테말라의 전통의상과 함께 전통직물을 활용한 의복을 착용하고 화려한 액세서리로 장식한 모습으로 카메라를 응시한다. 이 작품은 과테말라 마야 전통을 현대적인 컬렉션으로 탈바꿈하여 매장된 유물이 아닌 현대의 살아있는 역사를 표현했다고 평가받았다(Calderón, 2019). 작품을

통해 작가는 토착민과 그들의 문화는 언제든 고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처분이나 폐기될 탈주체화의 존재가 아닌 현대를 살아가는 존재로 표현하여 토착민의 정체성을 완성한다.

나아가 Gutierrez의 작품은 패션산업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토착민의 장인정신에 대한 무시와 문화적 전유에 대한 비판의 제기로도 볼 수 있다(Calderón, 2019). 작품 속 인터뷰에서 Gutierrez는 현대 미술계에서 토착 미술의 역할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토착 미술은 주요 행사에 초대받지 못하는 존재로 멧 갈라(Met Gala)가 끝난 후 청소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비유적으로 답했다. 그리고 일부 디자이너들이 토착민의 전통 블라우스를 전체 컬렉션의 영감으로 활용했지만 그에 대한 인정과 보상은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Gutierrez, 2018).

작가의 지적처럼 하이패션이 디자인의 영감으로 활용하는 토착민의 문화는 상업화되어 이윤을 남기지만 그에 따른 수익의 분배는 부재하며, 패션산업의 문화적 전유는 패션 의류와 토착민의 전통 의상 사이에 계층적 구조를 생산한다(Hoskins, 2014). 따라서 패션 미디어에서 화려하게 재현된 토착민과 그 문화는 고가의 제품으로서 소비되는 반면 토착민의 수공예나 장인정신은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낮은 지위를 가지게 된다.

다음으로 화려한 꽃과 구슬로 치장한 고대의 신의 이미지가 표현된「Demons, Tlazoteotl ‘Eater of Filth,’」(Fig. 6)에는 패션미디어에서 종종 묘사되는 토착민의 원시적이고 자연적인 이미지가 반영되었다. 아즈텍의 신인 틀라솔테오틀(Tlazolteotl)은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특징을 모두 가진 신으로 작가의 젠더 정체성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식민주의에 대한 비판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피부 전체를 황금색 보디 페인트로 칠한 신의 형상에서 유럽 백인 침략자들이 황금을 찾아 라틴 아메리카를 침략한 역사를 읽을 수 있다. 미술 저널리스트 Scott(2018)은 스페인 정복자 Hernán Cortés가 아즈텍의 왕 Montezuma의 황금을 약탈한 역사를 언급하면서 Gutierrez가 바디 페인트와 액세서리를 활용한 작품으로 식민주의를 비판하고 빼앗긴 것들을 되찾았다고 평가했다.

Athanasiou는 유럽의 백인 정착민들은 토착민들의 땅을 아무도 살지 않았던 무주지 혹은 황무지로 상상하는 담론으로 토착민들을 이방인이자 노숙인과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Butler & Athanasiou, 2013). 이에 토착민은 소속되지도 소유하지도 못하는 존재로 전락하여 현지인에 비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을 차지하게 된다. 더욱이 패션미디어를 포함한 다수의 미디어가 문화적 전유를 통해 주입하는 토착민에 대한 고정관념적 이미지는 토착민을 문화적 유산으로 대상화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여지기 어렵게 만든다.

패션미디어 뿐만 아니라 패션 업계 전반의 문화적 전유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 대중에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으로는 문화적 전유에 대한 지나친 경계는 창작자의 자기검열과 새로운 문화에 대한 학습을 방해할 수 있으며, 문화적 전유가 아름다울 수

Fig. 5. Neo-indeo, Cakchiquel calor.
Adopted from RYAN LEE Gallery (2018). p. 25.
https://issuu.com

Fig. 6. Demons, Tlazoteotl ‘eater of filth’.
Adopted from RYAN LEE Gallery (2018). p. 92.
https://issuu.com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Wang, 2019). 그러나 문화적 전유로 만들어진 토착민의 이미지는 타인에게 고정관념을 심어줌과 동시에 토착민에게도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정체성 확립이 일어나게 할 가능성이 높다(Kim-Prieto et al., 2010). 따라서 패션미디어가 토착민과 그의 문화나 전통을 활용할 때에는 토착민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IV. 결 론

오늘날 패션과 현대미술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으며, 경계는 점점 더 모호해지고 표현에 있어서도 상호교환적 양상을 보인다. 일부 현대미술가들은 패션미디어의 대중친화적인 표현방식을 통해 사회적 이슈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여 관객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현대미술가 Gutierrez 역시 패션매거진 형식을 차용하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탐구와 인종과 젠더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Gutierrez의 대표작 「Indigenous Woman」을 Butler and Athanasiou (2013)의 박탈 개념으로 작가가 표현한 정체성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현대미술이 차용한 패션미디어의 특성과 의미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젠더 정체성은 패션미디어가 제시하는 여성의 이상적 신체미를 활용하여 생득적 신체 부위의 소유에 권위를 부여하는 규범을 거부하거나 수행적 실천적 젠더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둘째, 인종 정체성은 패션미디어가 강화하는 백인성과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에 저항하고 자신만의 매체를 통해 규범적 전형을 극복하여 자신의 유색인종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계급 정체성은 패션미디어의 토착민의 삶을 원시적이고 자연적인 것으로 제한하는 고정관념을 표현한 이미지를 차용하여 그로 인해 생겨난 계층적 구조와 문화적 전유에 대한 비판적 인식으로 나타난다.

패션미디어의 토착민과 그의 문화를 활용한 이미지는 전통의 가치와 미적 아름다움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그러나 패션매거진 형식에 대한 Gutierrez의 비판적 전유는 패션미디어에서 정체성 자체가 상품화되어 소비와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그려지는 현실을 지적한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고착화된 토착민에 대한 고정관념과 현지인과의 계층적 차이를 대중적으로 친숙한 패션미디어라는 매체를 통해 직관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박탈 개념에서 신자유주의 권력에 해당하는 패션미디어는 이윤의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소유와 소비를 통한 소위 좋은 삶에 대한 환상과 진리를 심어주고 있다. 이러한 신화적 환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권력을 가진 자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패션미디어는 박탈당한 이들과 그들의 문화를 활용할 때 그것을 스펙터클로 활용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존중과 포용을 실천해야 한다.

본 연구는 현대미술가가 차용한 패션미디어의 형식과 특성을 고찰하여 현대미술의 관점에서 패션미디어를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리고 패션미디어를 활용한 현대미술 작품을 박탈 개념으로 분석하여 패션미디어의 박탈된 이들의 표현 관행에 비판적 문제의식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특정한 현대미술가의 작품에 대한 분석으로 연구대상의 범위가 좁다는 한계점을 가지는바 향후 다양한 타 영역에서 다뤄진 패션미디어를 연구하여 외부의 시선에서 그려진 패션미디어의 특성과 그 의미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1. 사사
해당사항 없음

2. 연구윤리
해당사항 없음

3. 데이터 및 자료 가용성
해당사항 없음

4. 이해관계 상충
저자 EY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본 학술지의 부편집위원장, 2023년 4월부터 편집위원이지만, 편집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아 이해관계 상충 문제가 없음.

5. 연구비 지원
해당사항 없음

6. 저자의 기여
MY는 사례 수집 및 해석을 담당하고 원고 작성을 주로 담당하였음. EY은 해석 내용의 검토와 연구 결과 도출을 감독하였음. 모든 저자가 최종 원고를 읽고 승인하였음.

7. 저자 정보
이명선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겸임교수
임은혁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References

Austin, R. (1992). Black women, sisterhood, and the difference/deviance divide. *New England Law Review*, *26*, 877.

Baek, J. H., & Bae, S. J. (2017). A study on the utilization characteristics of art print for strengthening visual identity of fashion bran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and Culture*, *23*(3), 401–410. doi:10.18208/ksdc.2017.23.3.401

Barthes, R. (2009). *Mythologies*(Annette Lavers, Trans). Vintage. (Original work published 1972)

Breward, C. (1998). Cultures, identities, histories: Fashioning a cultural approach to dress. *Fashion Theory*, *2*(4), 301–313. doi:10.2752/136270498779476127

Bucholtz, M., & Hall, K. (2005). Language and identity. *A companion to linguistic anthropology*, *1*, 369–394. doi:10.1002/9780470996522.ch16

Butler, J. (2011).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London: Routledge.

Butler, J., & Athanasiou, A. (2013). *Dispossession: The performative in the political*. Cambridge: Polity Press.

Byun, T. H. (2020). A study on expression of human image in digital media art focusing on the major works of Bill Viola and Martine Gutierrez. *Journal of Cultural Product & Design*, *63*, 109–122. doi:10.18555/kicpd.2020.63.10

Calderón, B. (2019, August 1). Demons and deities: Martine Gutierrez's indigenous inspired iconography. *Art21 magazine*. Retrieved from https://magazine.art21.org/2019/08/01/demons-deities-martine-gutierrez/#.YL2cv_kzaiM

Camp, S. M. H. (2015). Black is beautiful: An American history. *The Journal of Southern History*, *81*(3), 675–690. https://www.jstor.org/stable/43918403

Chung, S. (2018). Promotion of 'tolerance' though contemporary arts. *The Korean Journal of Art and Media. 17*(1), 73–105. doi:10.36726/cammp.2018.17.1.73

Crenshaw, K. (1989). Demarginalizing the intersection of race and sex: A Black feminist critique of antidiscrimination doctrine, feminist theory, and antiracist politics. In N. Lacey (Ed.), *Feminist legal theory* (pp. 139–167). London: Routledge.

Davis, L. R. (1997). *The swimsuit issue and sport: Hegemonic masculinity in sports illustrated.* Albany, NY: SUNY Press.

Fellah, N. R. (2020). Martine Gutierrez Indigenous Woman. *Aperture*, (240), 52–61. https://www.jstor.org/stable/27078366

Grassi, A., Swindells, S., & Wigley, S. (2019). The art foundations of luxury fashion brands: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In F. Carlotto & N. McCreesh (Eds.), *Engaging with Fashion* (pp. 60–74). Leiden: Brill. doi:10.1002/9780470996522.ch16

Gutierrez, M. (2018). *Indigenous Woman*. New York: RYAN LEE

Hall, S. (1996). Introduction: Who needs 'identity?' In S. Hall & P. du Guy (Eds.), *Questions of cultural identity* (pp. 1–17). London: Sage.

Herring, C. (2002). Bleaching out the color line? The skin color continuum and the tripartite model of race. *Race & Society*, *5*(1), 17–31. doi:10.1016/j.racsoc.2003.12.002

Hoskins, T. E. (2014). *Stitched up: The anti-capitalist book of fashion* (Vol. 254). London: Pluto Press.

Hunter, M. L. (2002). "If you're light you're alright" light skin color as social capital for women of color. *Gender & society*, *16*(2), 175–193. doi:10.1177/08912430222104895

Karp-Evans, E. (2019, November 26). Martine Gutierrez questions the commodification of diversity. *Cultured*. Retrieved from https://www.culturedmag.com/performance-artist-martine-gutierrez-photography-young-artists-2020/

Kim, J. H. (2017, June 7). 비누광고와 인종주의[Soap advertising and racism]. *문화연대*. Retrieved from https://culturalaction.org/39/?q=YToyOntzOjQ6InBhZ2UiO2k6MjY7czoxMjoia2V5d29yZF90eXBlIjtzOjM6ImFsbCI7fQ%3D%3D&bmode=view&idx=3851914&t=board

Kim, S. R. (2018). *A study on Marlene Dumas's figuration painting: by Judith Butler's concept of Disposs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Kim-Prieto, C., Goldstein, L. A., Okazaki, S., & Kirschner, B. (2010). Effect of exposure to an American Indian mascot on the tendency to stereotype a different minority group.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40*(3), 534–553. doi:10.1111/j.1559-1816.2010.00586.x

Kondo, D. (1999). Fabricating masculinity: Gender, race, and nation. In *About face: Performing face in fashion and theater* (pp. 157–86). London: Routledge.

Scott, A. K. (2018, October 20). A trans Latinx artist's high-fashion critique of colonialism. *Newyorker*. Retrieved from https://www.newyorker.com/culture/photo-booth/a-trans-latinx-artists-high-fashion-critique-of-colonialism

Seol, D. (2004). [기획 1-지구적 자본주의와 한국의 이주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배경[[Project 1-Global capitalism and migrant workers in Korea] Background to the foreign worker problem]. *실천문학*, 220–230.

Sheets, H. M. (2021, September 7). A shape-shifting woman plays all the parts. *The New York Times*. Retrieved from https://www.nytimes.com/2021/08/13/arts/design/Martine-Gutierrez-bus-shelter-photos.html

Talbot, M. (1995). A synthetic sisterhood. In *Gender Articulated. Language and the Socially Constructed Self* (pp. 143–165). London: Psychology Press

Twigg, J. (2018). Fashion, the media and age: How women's magazines use fashion to negotiate age identities. *European Journal of Cultural Studies*, *21*(3), 334–348. doi:10.1177/1367549417708432

Reddy-Best, K. L., Kane, L., Harmon, J., & Gagliardi, N. R. (2018). Critical perspectives on fashion textbooks: representations of race, gender, and body. *International Journal of Fashion Design*, *Technology and Education*, *11*(1), 63–75. doi:10.1080/17543266.2017.1299226

Rivas, M. (2021, January 4). How magazines addressed diversity in 2020 — and what that means for 2021. *Fashionista*. Retrieved from https://fashionista.com/2021/01/diversity-in-magazines-2020

Rosen, M. (2018, September 22). A trans Latinx artist's incredible high-fashion self-portraits. *Vice*. Retrieved from https://www.vice.com/en/article/9kvaey/martine-gutierrez-trans-latinx-artist-indigenous-fashion-photography

RYAN LEE Gallery. (2018). Martine Gutierrez: Indigenous Woman. *Issuu*. Retrieved from https://issuu.com/rlgallery/docs/indigenous_woman

Wang, C. (2019, April 20). Finding the beauty in cultural appropriation. *The New York Times.* Retrieved from https://www.nytimes.com/2019/04/20/opinion/cultural-appropriation-coachella.html

Wootson, C. R. Jr. (2017, October 9). A Dove ad showed a black woman turning herself white. The backlash is growing. *The Washington Post*. Retrieved from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business/wp/2017/10/08/dove-ad-that-shows-a-black-woman-turning-herself-white-sparks-consumer-backlash/

Verhaeghe, P. (2012). *Identiteit* [Identity]. Amsterdam: De Bezige Bij.

Vermes, J. (2021, January 1). Why the decades-old Black is Beautiful movement resonates so strongly today. *CBC Radio*. Retrieved from https://www.cbc.ca/radio/day6/bryan-fogel-s-new-documentary-the-dissident-black-is-beautiful-bruce-springsteen-s-first-manager-and-more-1.5849060/why-the-decades-old-black-is-beautiful-movement-resonates-so-strongly-today-1.5849061

Voltaire (1989). *Traité sur la tolérance* [Treatise on Tolerance], Paris: GF Flammarion.